

APEC TEL SPSG 활동보고서

# KISA, 국제 보안활동 주도하다



지난 몇 년간 KISA의 국제적인 대외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KISA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IT 개발도상국에게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APEC, OECD와 같은 국제협력기구 내 IT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서 KISA의 표준안이 채택되고 있다. 또 국제협력력을 위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KISA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APEC 내 정보보호 분과인 보안번영운영그룹 (SPSG: 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의 간사로 KISA 대응지원팀 조진현 선임연구원이 선임돼 향후 2년간 회의 진행은 물론, 실무그룹이 수행할 프로젝트 내용을 회원국과 함께 결정해 나가게 된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APEC TEL SPSG는

지난 1990년 처음 설립된 APEC TEL(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전세계 2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는 각 지역별 정보통신 인프라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최근에는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APEC TEL 내에는 '자유화 그룹', 'ICT 개발 발전 그룹', '보안번영운영그룹' 등 3개의 실무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보안번영운영그룹(이하 SPSG)은 정보보호 및 재난 복구분야를 중심으로 침해사고 대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기술의 악의적 활용 예방, 전자인증, 물리적 긴급사항 대비 및 대응 등 APEC 차원의 사이버, 물리적 보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23~25일 3일간 태국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APEC TELMIN)에서 정보보호 관련 분야가 2개의 세션을 통해 비중있게 다뤄졌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정보보호는 APEC 회원국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SPSG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져 있다.

## 국내 협력체계 회원국에게 높은 관심

가장 최근에 열린 SPSG 회의는 지난 3월 26~27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으며, 그간 KISA 주도로 진행해 온 프로젝트인 APEC 회원체의 효과적인 대응역량 강화 프로젝트(Strengthening Effective Response Capabilities among APEC Economies)의 최종결과물로 'APEC 국경 간 환경 하에서의 협력 대응 가이드라인(APEC Cooperative Response Guideline in

Cross-border Environment)과 '민관 협력기반 협력대응 관련 모범사례(Best Practice for Cooperative Response Based on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를 제출해 APEC TEL 전체회의에서 승인받았다.

### APEC 국경 간 환경 하에서의 협력 대응 가이드라인

그간 APEC은 회원국들의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나 사이버 범죄 예방조직과 같은 대응기구 설립을 강조해 왔으며, APEC 국경 간 환경 하에서의 협력 대응 가이드라인은 그 일환으로, 국가간 침해사고 대응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은 회원국 모두가 침해사고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각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뿐만 아니라 타 회원국의 보안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각국의 침해사고 대응능력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9가지 주제로 구분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PEC 국경 간 환경 하의 협력 대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Develop a domestic response strategy
- Make efforts to narrow gaps in cross-border environment factors like different legal framework, technology and policy in other economies,
- Designate and share trusted POC among APEC economies for cross border cooperative response
- Establish response capabilities with step-by-step approach
- Concentrate on damage mitigation from cyber attack
- Information sharing among stakeholders is vital to the success
- Build multidisciplinary cooperation relationship.
- Promote trust building among cross-border stakeholders to facilitate cross-borde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 Raise the awareness on response for all stakeholders in APEC economies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간 공동대응은 정부나 기관,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사이버 공격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비록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각국의 많은 규제와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협력을 위해 회원국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민관 협력기반 협력대응 관련 모범사례

한편, ‘민관 협력기반 협력대응 관련 모범사례’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보호 관련 기관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떠오른 악성 봇을 주제로, KISA 내 KrCERT/CC와 민간기업간의 침해사고 대응 체계가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KrCERT/CC가 개발해 ISP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봇넷(Botnet) 싱크홀(Sinkhole) 시스템’, 민간 기업이 보유한 서버의 악성코드 은닉을 탐지하는 ‘MC Finder 배포 및 정보수집’, 그리고 포털 사이트, 게임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많은 접속자를 보유한 대형 웹 사이트를 이용한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 배포’ 등 민간 사업자와 국내 정보보호 시스템 사업자 간의 협력모델은 타 APEC 회원국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발전된 협력체계이기도 하다. 이 같은 KISA와 민간 사업자간의 협력 모델은 APEC 회원국의 침해사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경우,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시 유용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이 최종 보고서에는 부루나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 APEC 회원국의 인터넷 이용률, 정보통신 관련 법, CERT 활동현황이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 개발도상국 침해사고대응 능력 향상 기대

한편, 도쿄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는 ‘봇넷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정책적 접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기기 보안’ 등 3가

지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돼 향후 SPSPG의 활동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봇넷의 기술·정책적 대응 노력은 중국이 주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로 채택된 국내의 민관 협력체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PEC 회원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여부도 일본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향후 3~5년 후 현재의 PC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기기 보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6개국이 진행하는 8개 프로젝트의 리포트가 이번 회의를 통해 업데이트 됐으며, 미국과 호주가 주도할 예정인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방안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제안됐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최근 동향을 감안해 볼 때, 침해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침해사고 대응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APEC TEL SPSPG의 활동은 이들 국가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

